고금리 어려움 극복과
신산업 전환을 위한
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

2024. 2. 15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Ⅰ. 기업금융현황 분석 ····· 1

1. 기업경영환경 ····· 1

2. 산업별 자금이용현황 ····· 2

3. 기업규모별 금융이용현황 ····· 3

Ⅱ.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····· 6

1. 신산업·혁신성장·첨단산업 분야 지원 ····· 7

2.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 지원 ····· 9

3. 고금리 등 경영애로해소 및 재기지원 ····· 13

4. 기업대출 제도·인프라 개선 ····· 18

Ⅲ. 추진 일정 ····· 19

Ⅰ. 기업금융 현황 분석

1 기업경영 환경

□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정에서 **고금리·고물가** 장기간 지속
→ 기업은 **매출·영업이익 감소** 등 **부담 가중**

○ **물가**는 **점차 하향 안정세***, **경기**는 **수출중심**으로 **회복세 전환*** 되는 등 **위기**는 **진정국면에 진입**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,

* 물가상승률(%): (`22) 5.1 (`23) 3.6 **(`24e) 2.6** [하반기 이후 2% 중반 안정 전망, 한은]
수출증가율(전년동월비,%) (`22.12)△9.7 (`23.6)△6.0 **(`23.12) +5.0**

○ 여전히 **금리가*** 높고, **IT·반도체** 등 **특정 수출산업**에 집중된 **업황회복**으로 인해 **전반적 체감경기**는 **좋지 않은** 상황**

* 은행권 기업대출 금리(%, 연도말): **(`20) 2.84** (`21) 3.14 (`22) 5.56 **(`23) 5.29**
** 기업경기실사지수(숫자가 낮을수록 '경기가 나쁘다'고 응답한 업체가 많음)
(`21.6) 98 [中企 88]** → (`22.6) 83 [75] → (`23.6) 73 [71] → **(`23.12) 70 [65]

□ **AI·로봇·신소재** 등 **산업구조 전환**과 **글로벌 분절화·공급망 재편**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**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필요**

○ **생성형 AI 활용**이 **全산업계로 확대**되면서 **고성능 그래픽 처리장치·반도체 디바이스 구축** 등 **첨단산업투자수요**는 **증가***

*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규모(가트너) : (`23) 534억$ (`24e) 671억$ (`27e) 1,194억$

- 반면, **중저기술 제조업의 매출·고용**은 **점차 감소***하는 추세

* 국내 제조업 **매출** 중 中低기술 산업 비중(%) : **(`01) 41.3** (`11) 43.4 **(`21) 35.8**
국내 제조업 **고용** 중 中低기술 산업 비중(%) : **(`01) 50.3** (`11) 46.9 **(`21) 44.1**

○ **미국·EU** 등은 **생산기지를 인접국·우방국**으로 옮기고(프렌드쇼어링), 중국 外 **공급기지 역할 대체지역**에 대한 **관심 증가***

* 알타시아(Alternative+Asia) : 英 「Economist」는 중국의 대안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**한국**·일본·대만·싱가포르, 인구가 많은 인도·인니, ASEAN국가(베트남·캄보디아 등) 주목

⇨ ❶**고금리** 등 어려운 **거시 경제환경**에 **효과적**으로 **대응**하면서도
❷**신산업 전환·미래먹거리 확보**를 통해 **글로벌경쟁력 유지** 필요

2 산업별 자금이용 현황

□ **(첨단산업) 시장규모가 지속 확대**됨에 따라 **첨단전략산업**은 **설비구축 및 R&D 투자수요*** 大

* 반도체·의약·전기기기산업 설비투자액(조원) :(`19) 52.1 → (`23) 81.8 (+57.0%)

○ **대기업을 중심**으로 내부유보자금 및 IPO·회사채 등 **직접금융 이용도 활발***하지만 **대출을 이용한 자금조달****도 크게 증가 중

* 차세대반도체 등 혁신성장품목 직접금융(조원) : (`19) 116.4 → (`23) 183.1(+57.6%)
** 차세대반도체 등 혁신성장품목 신용공여(조원) : (`19) 506.2 → (`23) 815.4(+61.1%)

□ **(제조업) '22년 이후 금리상승**에 따라 **대출이용 증가율**이 **감소** → **목적별**로는 **운영자금을 위한 대출비중이 증가**

○ 전체 대출에서 **전통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***하는 가운데,

* 전체 기업대출 (조원, 연평균증가율): (`19) 1,456.6 → (`23) 2,416.1 (+12.6%)
** 中低기술 업종이 **기업대출**에서 차지하는 비중 : (`19) 14.5% → (`23) 10.7%

○ **용도별**로는 **금리**가 낮았던 **'21년중 시설투자**가 **증가**하였다가 **금리상승 등 금융애로**로 **운영자금 비중이 증가***하는 추세

* 제조업 대출 증가액 중 **시설자금 : 운영자금**의 비중(한국은행)
(`20) 35.2 : 64.8 (`21) **85.4** : 14.6 (`22) 39.2 : 60.7 (`23.1~3Q) 34.7 : **65.3**

□ **(서비스업) 위기** 이후 **매출하락** 등 **어려움**을 겪고 있는 가운데, **업종별**로 **매출회복양상에 큰 차이***를 보이고 있음

* 운수·보관업, 도·소매업 등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 크게 증가(+80%)한 반면 방송·통신, 숙박·음식점 등의 매출·경영상황은 아직 코로나 이전수준 未회복

○ **서비스업 모든 업종에서 시설자금 비중***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투자를 통한 **신산업 진출 수요**도 **지속하여 존재하는 상황**

* 서비스업 시설대출(조원, 전체대출중 비중): (`19) 346.2**(47.2%)**→(`23.3Q)593.0**(49.2%)**

⇨ **첨단산업**에는 수요에 맞는 **충분한 자금지원이 필요**한 가운데 **어려움**을 겪고 있는 **제조업·서비스업의 사업구조 고도화** 및 **고금리 애로 해소**도 **지속하여 필요**

3 기업규모별 금융이용현황

(기업구분)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계
기업수(만개)†	0.3	0.6	40.5	41.4
(비중,%)	(0.8%)	(1.3%)	(97.8%)	(100.0%)
매출액(조원)†	3,324.2	961.4	2,393.4	6,678.9
(비중,%)	(49.8%)	(14.4%)	(35.8%)	(100.0%)
수출액(억달러)†	4,447.4	1,239.9	1,133.4	6,820.7
고용규모(만명)†	237.4	158.7	840.3	1,236.4
대출규모(조원)	217.8	255.4	854.9	1,328.1
평균대출액(억원)	2,113.6	589.8	19.4	34.2
차입금평균이자율†(%)	3.25	4.56	3.52	3.38
은행 연체율(%)	0.19	0.41	0.55	0.48

* `23년말기준, †표시는 이용가능한 최신자료

1 첨단전략산업 영위 대기업 : 대규모 설비구축 등 자금수요 大

□ 산업·무역 구조의 대전환 과정에서 반도체, 이차전지 등 **첨단전략산업**은 **대규모 설비 구축*** 등에 **자금수요가 큰 상황**

* 예 : 반도체 Fab 1기당 30조원 이상 소요, 이차전지 10Gwh당 1~1.5조원 소요
→ **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, 자동차산업**의 `30년까지 투자 예상 **607.7조원**(산은 등)

○ **내부유보금** 등 **활용 가능한 자금**이 향후 **투자에 필요한 수준**에 비해 **부족*** → **업황부진 지속**시 **자금압박 심화** 가능성

* 기업의 70%는 투자집행에 필요한 자금 규모 대비 현재의 **자금확보 비율이 "60% 미만"** (대한상의, 첨단산업분야 기업 대상 자금사정 조사결과, '23.4월)

○ **고금리상황**에서 **대기업들의 회사채·IPO 등 직접금융 조달도 위축** → **첨단산업**의 **대규모 수요를 보완**할 **자금공급 필요**

【 대기업 직접금융 조달 추이(조원, 금감원, 코스콤) 】

구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`22년	`23년(~11월)
직접금융	**20.1**	**45.8**	**56.0**	**80.4**	**47.3**	**48.5**
(회사채)	14.1	43.3	49.6	56.3	29.1	42.4
(주식)	6.0	2.5	6.4	24.1	16.9	6.2

⇨ **첨단산업**에서 **글로벌 경쟁우위**를 **선점 및 지속**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**대규모 혁신투자를 지원**할 필요

2 중견기업: 경쟁력 강화 위한 대규모 투자 · 新산업전환 필요

□ **(의의)** **중견기업***은 **매출규모·고용** 등에서 **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**
→ 특히 **제조중견기업**은 소·부·장 등 **우리 산업생태계의 허리**

* 기업수 5,576개(1.3%)로 **국내 총매출액의 14.4%, 총고용의 12.9%, 수출의 18.2% 차지**
→ 제조중견기업(1,989개) 중 소재·부품·장비기업이 86%(1,683개)

○ **전기·바이오헬스** 등 **첨단산업** 중심*으로 **매출액 증가**가 크고 **설비투자 및 신사업진출 소요**도 **지속 확대***

* 중견기업 업종별 매출액(`22, 조원) : (전기장비) 36.3(전년비 43.5%↑) (바이오) 25.3(16.1%↑)
** 중견기업 신사업분야 투자(예상)금액(조원) : (`21) 6.6 (`22) 6.5 (`23$^{e}$) 7.2 (`24^{e}) 7.5

□ **(금리 부담)** 다만 **전반적으로는 고금리 등으로 경영·재무 여건*** 악화

* 이자보상배율(배) : 8.23('17) → 6.22('19) → 6.33('20) → **9.23('21) → 6.68('22)**
한계기업비중(%) : 9.9('18) → 11.3('19) → 12.5('20) → **12.8('21) → 14.1('22)**

○ **중견기업**이 **적용**받는 **금리**는 **중소기업보다**도 **높은 것이 현실***
→ **자금조달 애로사유**로 **금리상승**(70.4%)이 **가장 큼**

* 차입금평균이자율(`22, %, 한은) : (대기업) 3.25 **(중견기업) 4.56 (중소기업) 3.52**

○ **저리 정책자금**은 **중소·벤처기업 위주로 설계***되어 있거나 **첨단·기간산업 중심**으로 **공급**되어 **중견기업은 사각지대**

* 예: 신보의 보증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 한도로 중견기업 자금수요에는 부족

□ **(직접금융 제약)** **기술력 확보**를 위한 **대규모 투자가 필요**하지만, **회사채** 등 **직접금융 이용**이 **쉽지 않은 환경***에서 **지분투자도 미흡**

* 공모 회사채 발행 중견기업은 95개 (총 5,589개 중견기업 중 1.7%, `22년)

○ **펀드 등**을 통한 **지분투자**는 **고위험·고수익의 벤처투자** 또는 **안정적 상장사**(연기금)에 집중되어 **중견기업**은 **충분한 투자**를 **받기 어려움**

○ **투자 중견기업**은 **내부유보자금**을 **활용**하는 경우가 많고(72.4%), **기술개발**도 **자체개발**(61.9%) 방식의 **초기발굴 단계**(43.9%)

⇨ **중견기업**이 고금리를 이겨내고 **'혁신산업의 주체'로 기능**하도록 **❶판로·수출길 개척** 및 **❷자금조달 수단 다양화** 지원 필요

3 중소기업: 원자재·인력난과 함께 고금리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 지속

□ **(의의)** 중소기업은 **기업수·고용***에서 **차지하는 비중**이 **절대적** → **경기회복**을 체감하려면 **中企의 활력제고**가 **매우 중요**

* 중소기업수는 40.5만개로 전체 기업의 98%, 고용자는 840.3만명

□ **(고금리 부담)** 위기 극복과정에서 **경기둔화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**되면서 **중소기업**의 **경영 여건은 계속 악화***되는 상황

* 중소법인 매출증가율(전년 동기대비, %, IBK 경제연구소)
: ('21말) 8.4 → ('22말) △0.2 → ('23.1Q) △0.9 → ('23.2Q) △5.2 → **('23.3Q) △4.3**

○ **매출·영업이익**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는데 **대출금리가 높은 수준**을 유지 → **금융비용 부담이 큼***

* 중소기업당 평균 대출규모(신정원): 14.8억원(`19년말) → 19.4억원(`23년말)
금리 5~7% 비중(신규기준, %) : 3.5('21.12월) → 66.8('22.12월) → **64.6('23.12월)**

□ **(위기기업 증가)** 물가가 **점차 안정**되고, **수출도 일부 회복**되는 모습이지만, **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**은 **아닌 상황***

* 중소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(숫자가 낮을수록 '경기가 나쁘다'고 응답한 업체가 많음)
(`21.6) 88** → (`22.6) 75 → (`23.6) 71 → **(`23.12) 65

○ 코로나 이전 **정상적인 경제활동**을 했던 **기업**들도 여전히 **이자 상환에 어려움***을 겪고 **연체율도 최근 다시 상승 추세****

* 이자보상비율 1미만 기업비중(%) : ('19.12) 24.0 ('22.12) 28.7 (`23.6) 34.9 **('23.12) 38.4**
**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(%, 은행권) : ('19말)0.44 → **('21말)0.27 → ('23.10월)0.55**

※ 중소기업은 주로 **고금리부담 경감, 새로운 사업 진출자금 지원** 등을 요청 (`23.12.1일 중소기업 간담회 등)

□ **(신산업 진출)** '대·중견-중소기업'으로 이어지는 **밸류체인**의 **절대적 비중을 차지**하는만큼 **신산업전환·확장을 위한 투자**도 긴요

⇨ **중소기업**의 ❶**신사업 재편** 및 ❷**금리부담 완화**를 지원하는 한편, ❸**위기(실패)기업**의 재기 및 **신속한 정상화도 지원**할 필요

Ⅱ.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

[기본 방향]

□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업이 처한 경영상황 및 기업규모별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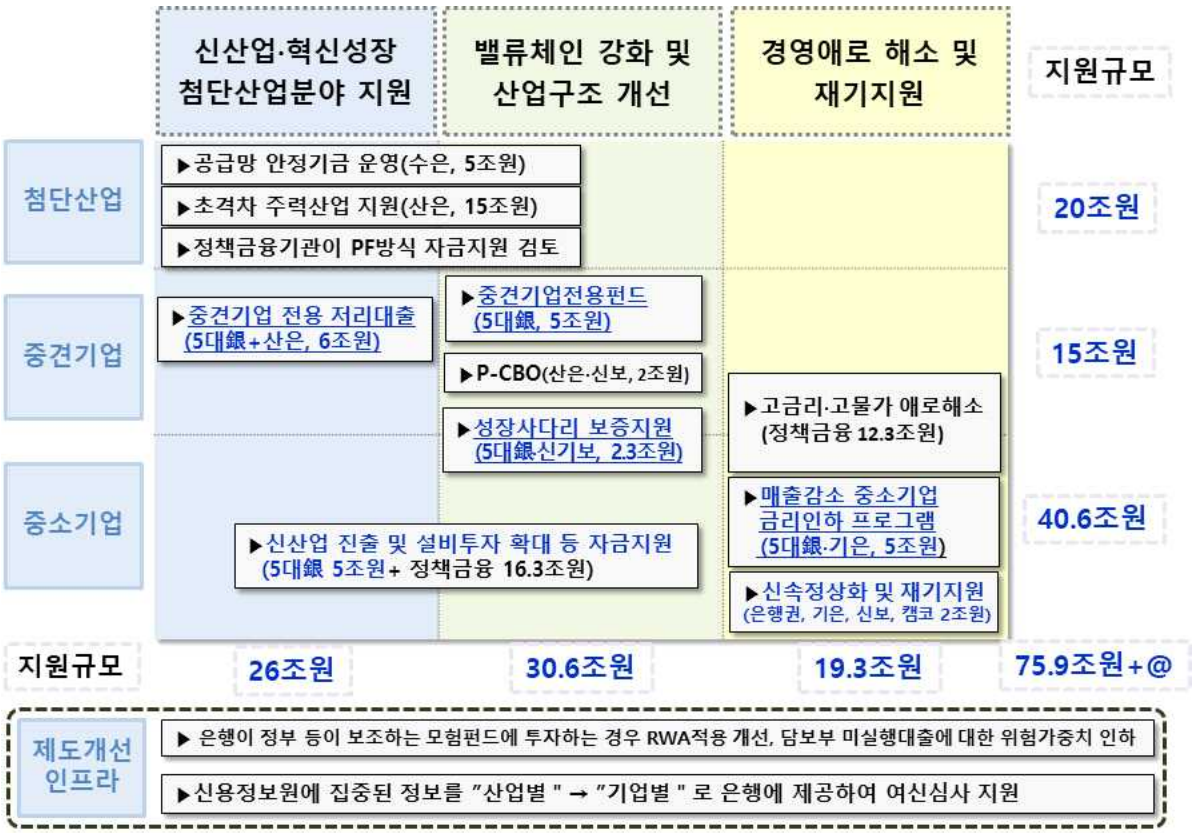
❶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격차·주력산업 영위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산업구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

❷ 국내산업의 밸류체인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을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단단한 하부구조를 확립

❸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위기기업에는 신속한 정상화 및 실패 후 재기를 지원

❹ 은행이 기업금융을 적극지원하도록 제도·인프라 개선

[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요약]



※ 총 75.9조원 중 5대 은행은 총 20조원의 프로그램에 참여·지원

1 신산업·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 (26조원)

□ 첨단산업 영위기업은 **내부유보자금** 등을 통해 **투자수요에 대응**하고 있으나 **필요자금**에는 **미치지 못하는 상황**

⇨ **미래 먹거리**의 **경쟁우위 확보**를 위해 투자를 증가시키는 **첨단산업 영위기업**에 **정부**와 **은행권**이 **집중 지원**

1 공급망안정기금 (`24년 5조원)

□ **수입선 다변화·대체기술 개발·국내 유턴기업** 및 **해외자원 확보** 등에 **자금이 필요한 기업**(선도사업자* 등)을 집중 지원(기재부, 수은)

* 경제안보품목의 안정화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자

○ **(지원 규모)** 기금채권 **발행한도** ('24년 下 5조원 예정) **범위 내**

○ **(지원 일정)** '24.6월 '**공급망기본법**' **시행** 예정*

* 상반기 중 국회 보증동의, 전담조직(수은) 및 기금심의회 구성 등 통해 하반기 운용 개시

2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(15조원, 산은)

□ 주력산업 및 신수출 동력산업 중 **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**되는 **5대 분야***에 지원

* 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, 원전, 디스플레이

○ **(그간 지원 성과)** '23.2월 출시 이후 연말까지 **6.7조원 지원**되어 **수출 대기업·관계기업의 부담 경감** 中

○ **(지원 내용)** **고금리**가 **지속**되는 점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**대출금리 최대 △1.2%p 인하, 총 지원규모 확대**

○ **(지원 규모)** 15조원

○ **(지원 일정)** '24년중 계속 지원

□ **첨단전략산업**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**정책금융기관 및 민간금융사** 등이 함께 참여하는 **PF방식 자금지원** 검토

○ **(지원 대상)** 반도체·이차전지 등 **대규모 설비투자**가 **필요**한 **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**

○ **(지원 구조)** 수요기업 등이 **SPC를 설립**하고 **대주단**(정책금융기관·민간금융사 등)은 **SPC에 자금을 공급**하여 **설비 투자 진행***

* 자금수요기업과 SPC간 장기공급계약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대주단 대출 상환

○ **(지원 내용)** **일정한 조건***을 **만족**하는 경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 등이 함께 **대주단으로 참여**하여 자금을 공급

* ❶ SPC와 자금수요기업, 자금수요기업과 최종 구매기업간의 고정가 기반 장기공급계약이 존재
❷ 자금수요기업이 SPC에 책임성 있는 참여(일정수준이상 출자, 모회사 보증) 등

3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(6조원, 시중은행)

※ **5대 은행 5조원** + 산업은행 1조원

□ **신성장 분야**로 **신규진출·확대 투자**를 **원하는** 중견기업을 위해 **최초로 민간은행 중심**의 중견기업 전용 **저금리 대출프로그램 마련**

○ **(지원 규모)**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이 **각각 1조원씩 총 6조원**

○ **(지원 대상)** **성장잠재력**이 높은 **9대 테마, 284개 품목**으로 구성된 **'혁신성장공동기준***'**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을 **폭넓게 지원**

* 시스템반도체, 경량화소재, 스마트팩토리 등 최신기술, 산업트렌드 및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됨 → 취급은행은 판단가이드를 공유

- **중견기업**이 혁신품목을 직접 생산·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 관련 **전·후방산업 업체도 이용 가능**

○ **(지원 내용)** 기업의 **설비투자, R&D자금, 운영자금 등**에 대해 **업체당 최대 1,500억원*까지 1%p 금리**를 **우대**하여 **대출 지원**

* 시설자금 최대 1,000억원,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

○ **(출시 시기)** 은행별 전산 준비를 거쳐 **4.1일 상품 출시**(예정)

2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 지원 (30.6조원)

□ 핵심산업의 소재·부품·장비를 생산하며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중견·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

❶ 신사업 진출 및 설비확장을 통해 산업의 허리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펀드 및 저리 대출 프로그램 제공

❷ 회사채 등 발행지원을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

❸ 성장 후에도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도록 성장사다리 마련

1 중견기업전용펀드 및 중소기업用 저리대출 프로그램(26.3조원)

※ 5대 은행 프로그램 10조원 + 정책금융기관 16.3조원

가. 중견기업 신산업 지원 전용 펀드

□ 중견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초로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전용펀드를 도입

○ **(주목적 투자대상)** 사업재편 및 스케일업, M&A를 추진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에 펀드규모의 50% 이상 투자

【 중견기업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(안) 】

ㅇ중견기업의 성장자금(시설투자, R&D, M&A 및 해외진출 등) 지원

ㅇ중견기업 성장 후 회수지원(Buy-Out, 기존펀드의 투자자산 인수 등)

ㅇ사업재편 및 새로운 사업 진출, 신기술 도입 등

○ **(투자 규모)** 최대 5조원, 1차로 5,000억원 규모로 조성*하고 성과에 따라 운영규모 확대

* 5대 시중은행과 성장금융(모펀드 운용사)은 MOU를 통해 (최대)출자 규모를 확약하고 1차로 500억원씩 출자하여 1차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조성

○ **(조성 계획)** '24년 3분기까지 1차 펀드 결성 완료 후 집행

나. 시중은행이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우대

□ 설비투자 확대, 사업재편 및 미래혁신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5대 은행이 우대금리로 대출프로그램 제공

○ **(대상)** 신산업으로의 **사업구조 전환 및 사업확대** 등을 **추진**하는 **중소기업**에 대한 **신규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**

* 은행은 자율적으로 지원상품을 신규개발 또는 기존상품에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제공

○ **(지원 내용) 우대금리 적용**(프로그램별 금리감면 최대 △1.0%p)

○ **(지원 규모)**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5조원

다.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우대자금지원

□ **전략산업을 영위**하기 위한 사업확장, **기술력이 우수한** 중소기업 등에게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자금을 제공

○ **(지원 대상) '정책금융지원협의회'** 선정 **5대 전략분야**[1] 영위, **12대 국가 전략기술**[2], **신성장 4.0**[3] **영위** 등 전략산업에 자금 공급

1)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, 미래유망산업, 사업재편, 유니콘 육성 등
2)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인공지능, 양자, 첨단모빌리티, 차세대원자력, 바이오, 우주 등
3) 미래기술, 디지털혁신, 전략분야의 초격차 창출 등 미래산업중심 범정부 성장전략

- 또한 재무제표 비중을 낮추고 **미래추정 영업 이익** 등을 고려한 **혁신성·성장성** 기반 **여신심사**를 통해 **기술기반 자금공급***

* 매출이 아닌 투자유치금액 기반 보증한도 우대, IBK창공·Start-up NEST 등 창업기업용 종합플랫폼 추천기업에 대한 우대조건 대출 등

○ **(지원 내용) 우대금리 적용**(프로그램별 금리감면 최대 △1.5%p) 및 **보증료 감면, 최대 보증비율 우대** 등*

* 기관별 상세 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참조

○ **(규모)** 산은 5.7조, 기은 6.1조, 신보 2.5조, 기보 2조 등 총 16.3조원

2 중견기업의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활용 지원(2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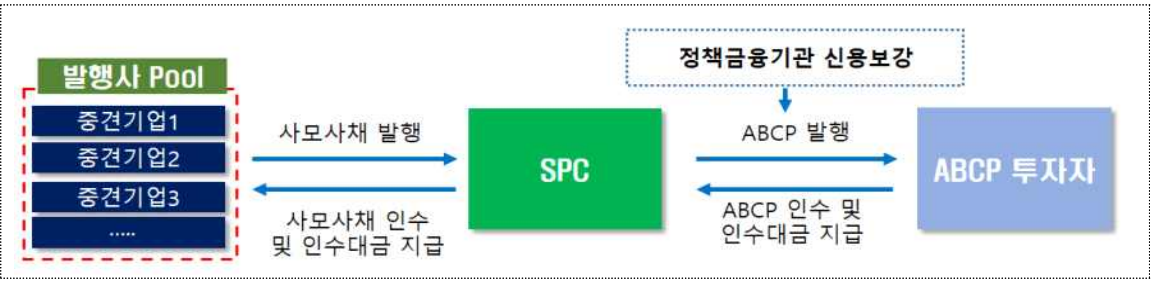
가. 첨단·전략산업 자금조달을 위한 P-CBO 발행지원

□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첨단기술·전략사업 수행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사모사채(P-CBO) 발행 지원

○ **(지원 방식)** 중견기업이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유동화증권에 대한 **신용보강 지원**

○ **(지원 규모)** 1.8조원 * 산은 0.3조원 및 신보 1.5조원

【 사모사채 유동화(P-CBO) 구조도 】



※ 외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**신보가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**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금리 인하도 추진(신보법 개정사항)
(평균 연간 △0.5%p 비용 인하 기대*)

* P-CBO 편입 기업의 평균 조달액 59억원 → 기업당 평균 연 3,000만원 비용축소

나. 매출채권 유동화(팩토링*)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

* 신보(팩터)가 상거래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신청기업에 즉시 자금을 제공하고,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→ 신청기업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

□ 중견기업도 **팩토링**을 **이용**할 수 있도록 **개선**하고, 향후 경제상황 및 지원여력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*

* 우선 매출액 3,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부터 도입 → 지원대상 점차 확대

○ **(지원 규모)** 연간 팩토링 지원 1,500억원 중 중견기업 400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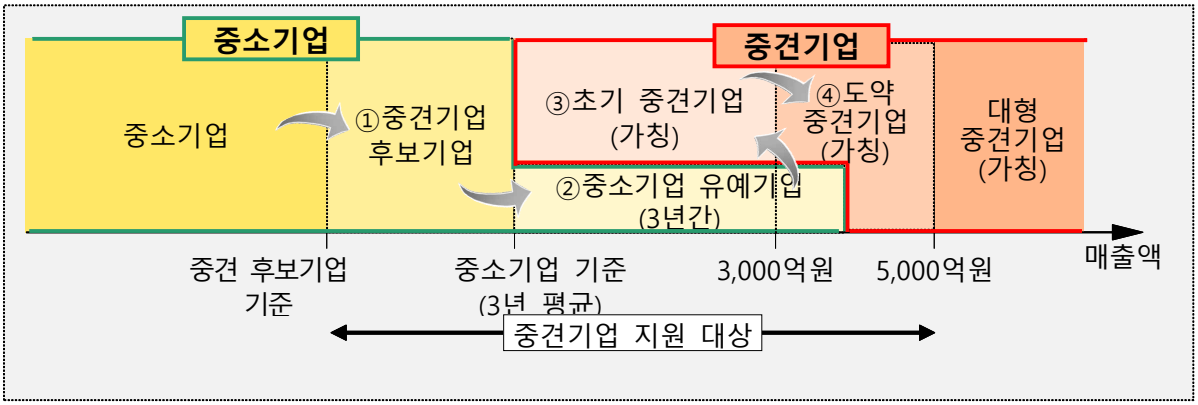
3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(2.3조원)

※ **5대 은행 1.5조원** + 신보여력 0.5조원

□ **은행**의 임의출연을 기반으로 **신보**가 **'중소기업→중견기업'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**을 통해 **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**

○ **(지원 대상)** **매출액과 도약단계**를 기준으로 **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**하는 과정에 따라 지원

【중견기업 단계 구분(신용보증기금)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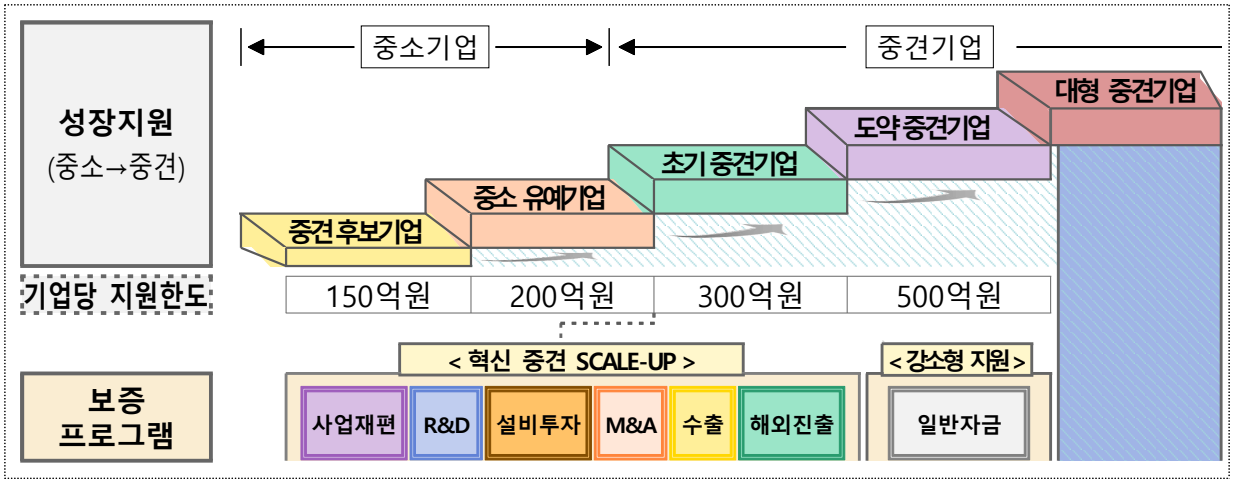


○ **(지원 규모)** 2.3조원 ☞ 신보의 보증여력 0.5조원 + 기보 보증여력 0.3조원 + 5대은행의 신보임의출연을 통한 협약보증 1.5조원

○ **(지원 내용)** **기업당 최대 보증한도**를 확대(100억원→최대 500억원)하여 중견기업도 **보증부저리자금**을 이용한 **투자**가 가능

○ **(출시 시기)** '24.상반기 중 시행

【중소-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(신용보증기금)】



3 고금리 등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 지원 (19.4조원)

□ 중소기업의 전반적 경영상황은 위기 前인 '19년에 비해 악화

【 `19년과 `23년말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요약 】

중소기업	2019년		2023년
평균대출액	14.8억원		19.4억원
평균금리	3.50%		5.31%
분기매출액	26.3억원	⇨	29.2억원
대출연체율	0.67%		0.55%
이자보상배율 1미만	26.1%		36.9%
파산신청건수	931		1,509(~11월)

○ **실질매출은 하락**했으나(매출 11.0%↑ vs. 생산자물가 16.9%↑) **금리**는 **과거에 비해 크게 높음 → 기업경영**이 매우 **어려운 시기**

○ **연체율**은 '19년에 비해 다소 낮으나 **이자율 수준 감안**시 **향후 상승 가능성 상존 → 정상화가능기업**은 **신속한 지원 필요**

○ **폐업기업** 증가 → **실패경험을 이용한 새출발 지원 필요**

⇨ **기업의 경영상황**에 따라 **정상기업 회복·신산업 성장**이 가능하도록 **단계별 지원프로그램** 마련

【 기업의 경영상황 단계별 목표 및 지원방향 】

구분	정상기업	유동성부족	부실기업
경영상황	**정상경영 또는 일부 매출하락**	**일시유동성부족**	**폐업**
목표	고금리·고물가 부담 경감	**빠르고 확실한** 지원으로 정상화 도모	실패경험이용 재창업 지원
지원방향	1 금리우대 및 금리인하특별프로그램	2 신속금융지원	3 재기지원보증

기업구분 (유동성 상황)			금리우대 및 금리인하프로그램			신속정상화 지원	
			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	중소기업 금리유예 지원	고금리 고물가 애로해소	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	부실징후 기업지원
			5대銀+기은	기업은행	정책기관	은행권	기은산보캠코
유동성 有	일시매출하락 경험	⇨	▨	▨			
	고금리부담 정상기업	⇨			▨		
일시부족	일시적 유동성부족	⇨				▨	
유동성 低	부실징후 기업(워크아웃)	⇨					▨
	회생절차	⇨					

* ▨ :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지원

▨ : 지원대상 요건 충족 & 경영정상화계획 등 기업의 이력·환경 종합 심사

1 고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(17.3조원)

※ **5대 은행 프로그램 3조원** + 정책금융기관 14.3조원

가.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(은행권 공동)

□ **매출하락** 등 **어려움을 겪고** 있는 **정상경영 영위 중소기업**에 대해 **은행권이 공동으로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** 마련

○ **(참여은행)** 기업은행(2조원) + 5대 은행(총 3조원) 등 **총 5조원**

○ **(지원 대상)** **최근 매출하락 등을 경험**하여 **이자부담이 매우 크지만**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**정상영업 영위 중소기업**(법인)

-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(10등급 기준) 상 7등급 이상 기업(법인)
- 최근 매출 하락을 경험(1년 전 대비 분기매출 혹은 연매출 하락)
- 이자보상배율 1미만 (단, 3년 연속 1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)
- 자본잠식이 아니며 부채비율 400%미만, 영업이익이 양(+)인 정상기업

○ **(지원 방식)** 대상 기업이 보유한 **대출금리 5.0% 초과 대출***에 대해 **1년간 금리**를 **5% 까지**(최대 2%p 한도)까지 감면

* 정책대출(재정기금대출, 협약대출). 한도여신 등은 제외

- 현재보유대출에 **즉시적용 또는 만기연장 시점에 적용 가능**

○ **(지원 시기)** **'24.4.1일**부터 **차주 신청에 따라 즉시 지원**

나. 이자상환에 어려움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리유예 지원(기업은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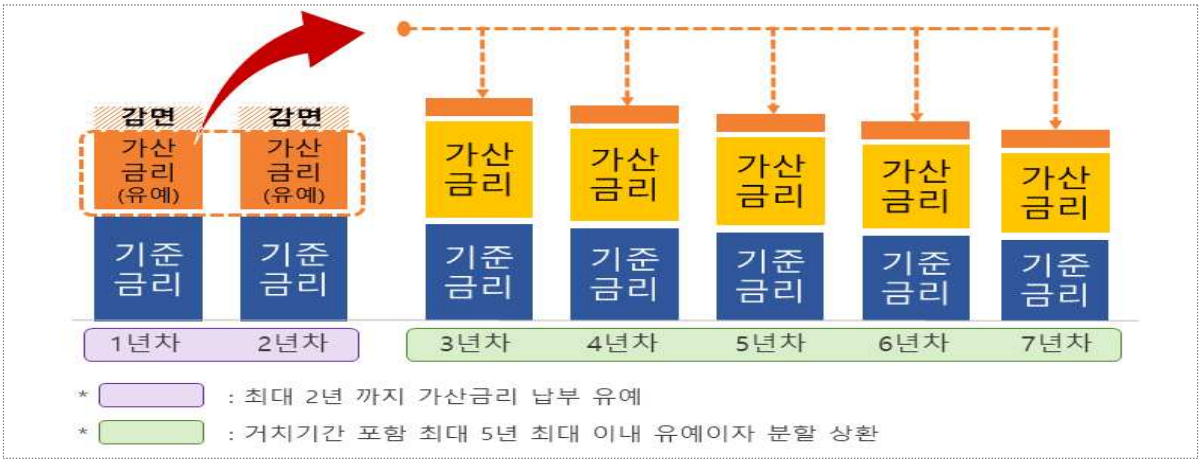
□ **고금리 지속**으로 **이자상환에 어려움**을 겪는 **기업**을 위해 2년간 **가산금리 일부감면*** 및 유예, **5년 이내 분할상환**(기은, 1조원)

* 중복적용되지 않는 감면항목을 중복 적용하여 가산금리 감면효과

○ **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**했으나 **현금흐름이 양(+)**이고 **재무개선 가능성**이 있는 **정상기업**에게 **당장의 금리부담 경감** 지원

○ **유예기간**동안 경영이 개선되면 **금리 재산정 주기**에 **가산금리 인하도 기대**할 수 있음

【 중소기업 회복 지원 프로그램(기업은행) **】**



다. 정상영업 중인 기업의 고금리·고물가 어려움 해소(11.3조원)

□ **높은 금융비용·고물가**로 인해 **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**을 위한 **우대조건 정책자금 제공**(산은 2.8, 기은 2.4, 신보 3.1, 기보 1조원)

○ **원자재수급차질 피해**(우려) 기업, 중장기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**장기자금지원, 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** 등

* 프로그램별 금리감면 최대 △1.5%p, 보증료 감면 최대 △0.5%p 등[상세 별첨]

□ 금리 상황에 따라 **매 3개월마다 횟수제한없이 변동↔고정금리간 전환 가능**한 **저리의 고정금리 상품 지속공급**(산은 1조원, 기은 1조원)

*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경우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△1.0%p 감면

2 유동성 부족기업: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을 통해 정상기업화 (1.7조원)

가. (유동성부족직면)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

□ 은행권 공동으로 **일시적인 유동성 부족**에 직면한 **중소기업**에게 **상환유예 및 이자감면** 등을 통해 **신속한 정상화 지원**

○ **(제도개요) 은행권**은 **시장상황**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의 **과도한 위축**을 막기 위해 **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** 지원 중*('08년~)

* 주채권은행의 주기적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(부실징후가능성)인 경우 지원

○ **(대상확대)** 올해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**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**으로 **'예상*'되는 기업도 지원대상**에 포함

* 예) 재평가시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
→ 현재는 A등급이나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%이상 감소, 현금흐름 음수 등

○ **(혜택 강화)** 올해 신청한 기업들에게는 **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**하여 (현재기준) **3%대 금리를 적용**(주요시중은행의 조달금리수준)

나. (부실징후기업) 경영정상화 가능기업에 신속정상화 지원

□ **구조조정 기업***을 **주목적 투자대상**으로 하는 **유일한 정책펀드**인 **기업구조혁신펀드**(5호) **추가 조성**('24년 1조원, 캠코)

* **(사전적 구조조정 기업)**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, 재무안정PEF 투자대상 기업 등
(사후적 구조조정 기업) 회생, 워크아웃,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

□ **부실징후 기업** 중 **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***에 대해서는 **채무조정 및 금리인하 기회 제공, 신규자금도 공급**(기은 0.5조원, 신보 800억원, 캠코 550억원)

*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 후 채무조정·신규자금 지급

□ **기업자산 매입 후 재임대***를 통한 **유동성 지원시 자산유동화 방식(CLO)**을 도입하여 **더 많은 자금 공급**을 **유도**(캠코, 800억원)

* ①단순 매입(Buy&Hold), ②매입 후 재임대(S&LB)→ 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요율 인하 등 추진 ③펀드투자(LP)

3 재창업기업: 성실경영 후 실패경험 기업인※ 재창업 지원 (0.3조원)

※ 재창업 기업의 **5년 생존율은 73.3%**로 **전체 창업자 생존율 29.2%에 비해 크게 높음**
→ **기업인**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서 **전체 산업**의 역동성을 강화

가. 채무 변제중인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

□ **(현황)** 회생,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을 거쳐 **신보 채무**를 **정상 상환** 중인 기업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에는 **신규보증**을 제공 중

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업체수(개)	12	114	136	126	72	76	61	53

○ 다만, 법원 회생절차와 비교해 **신복위 신용회복절차**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**상대적**으로 **재창업**에 **불리**

- **회생**은 1년 채무상환 시 **회생절차 조기 종결***이 가능하나, **신복위 신용회복**의 경우 **2년이 경과**해야만 **자금지원 가능**

*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남아있으나, 신규자금조달·자산처분 등을 법원허가 없이 수행가능

□ **(개선)** 신복위의 **신용회복절차**를 **1년 이상 성실히 이행**하고 **신용보증기금**의 **책임성실평가***를 통과하는 경우 **재창업 보증 제공**

* 고의부도, 채무면탈 등 위법·부정행위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했는지 평가

나. 신용등급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

□ **(현황)** **기업대표**가 보증기관 **연대보증**이 **면제**되었더라도 **폐업후** 신용도 문제 등으로 **재창업 자금조달**이 **어려운 경우**가 다수

□ **(개선)** 기업을 **성실하게 운영**했지만(책임경영이행약정*) **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**되는 경우 신보가 **재창업 자금 지원**

* 과거 보증시점에서 기업인과 보증기관은 금융법규·회계처리기준 준수, 횡령·배임·자금유용 금지 등을 이행할 것이라는 약정을 체결 + 사업성 등에 대한 컨설팅 병행제공

⇨ **6개 은행**(KB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)에서 **신규 재창업 보증상품**을 **적극 취급**하고, (3년 1,500억원)

○ **기존 재창업 프로그램도 확대 공급** (연간 400억원 → 3년 1,500억원)

4 기업대출 제도 및 인프라 개선

1 기업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

□ **은행**이 **정책성 펀드** 등에 **출자**하는 경우 **BIS비율 부담**을 **경감**할 수 있는 **위험가중치 하향 적용 요건 활용**을 **활성화**

○ **(현행)** 은행이 정책성 펀드 등에 출자시 **일정한 요건을 충족***하는 경우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(400%→100%)할 수 있으나, 은행이 **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상황**

*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[별표3]
❶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❷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❸ 정부의 감독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

⇨ **(개선)** 은행이 정책성 펀드 출자시 세칙상 **요건 충족 여부**에 대한 감독당국의 **비조치의견서 접수·처리를 활성화**

□ **보증부 분할실행대출** 중 **미실행금액**에 대한 **위험가중치 인하**

○ **(현행) 보증서 담보 시설대출**(한도 약정)은 **보증서를 근거**로 **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대출이 실행**

- 실행된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0%의 위험가중치를 인정하지만 **미실행금액**에 대해서는 **최대 150%의 가중치 적용**(보증서 미인정)

⇨ **(개선) 보증승인통지서가 발급된 미실행금액***에 대해서도 보증사 **위험가중치**(0%)**를 적용**하여 은행의 **기업금융지원여력을 확보**

* 약정금 총액에 대해 보증승인통지서 존재 + 보증서발급시에만 인출가능한 구조인 경우

□ **차주 신용등급 결정에 대한 개별은행의 자율성을 보장**

○ **(현행) 주채권은행**이 아닌 은행은 구조조정회생 기업 등에 대한 **차주등급 상향** 및 **충당금 환입**이 **주채권은행 결정** 이후 이루어져 **기업금융 지원여력 확보에 어려움**

⇨ **(개선) 차주등급 상향 및 충당금 환입 결정**은 **은행 자율로 결정**

2 기관간 자료 공유를 통해 은행의 여신심사 효율성 제고

□ **신용정보원**에 집중된 **기업재무 정보·기술력·매출** 등 **정보**를 (기존) **"산업별"** 수준 → (개선) **"품목별·기업별로 세분화"**하여 **은행에 제공**하여 **여신심사 지원**

○ **(현행)** **기업금융**은 **가계대출***과 달리 **매출, 영업환경, 기술력, 거래처와의 관계, 시장상황**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**성장가능성·부실률이 동태적**으로 **변화**

* 신용등급·LTV 등 대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표준화되어 있어 취급이 용이

- 그러나 이러한 **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**할 수 있는 **시스템 부재** → **은행은 담보·보증없는 대출**에 **소극적**일 수밖에 없는 측면

⇨ **(개선)** **은행은 여신심사**시 기업에서 제출받은 **자료 뿐**만 아니라 **신정원**에 집중된 **자료*까지 함께 활용**하여 **대출심사** 효율성 제고

* 기업 일반정보, 직·간접시장 차입정보, 거래정보, 기술력, 관계회사, 동일산업내 위상 등(→ 신정원의 기업금융분석시스템(EFAS)을 고도화하여 은행제공)

□ **사업재편지원제도**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은행이 추천한 **사업재편기업 명단**을 **주기적으로 공유**

○ **(현행)** **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** 및 **재편 등**을 위해 **채권은행**이 **사업재편기업을 선정·추천**하여 혜택*을 제공하는 제도 시행 중

* R&D 자금, 컨설팅 및 세제혜택 등 제공(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, `16년~) → 최대 4년간 신용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여신회수 등 방지

- 다만, **은행**간 **사업재편 지원기업 목록 등**이 공유되지 않아 **공동지원이 어려운 상황**

⇨ **(개선)** **주기적인** 간담회 등을 통해 **은행권이 추천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명단 및 금융지원 실적을 공유**하여 은행간 **공동지원 유도**

Ⅲ. 추진 일정

□ **정책금융기관의 프로그램** 신설·확대로 가능한 **상품**은 **즉시 공급**하여 **기업의 금융애로**를 해소

○ **은행권**의 협조가 필요한 **신설 상품의 경우**에도 신속하게 **후속 조치**를 수행하여 **기업에 필요자금**을 공급

정책 과제	시행주체	시행시기
Ⅰ.신산업·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		
▸ 공급망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	수출입은행·기재부	`24.하반기
▸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프로그램	산업은행	계속
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PF방식 자금지원 검토	산업은행	개별수요대응
▸ 신산업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	5대은행 및 산업은행	`24.4.1일
Ⅱ. 밸류체인 강화 및 산업구조 개선지원		
▸ 중견기업 전용펀드	5대은행	`24.3분기
▸ 시중은행의 신산업 진출 중소기업 우대상품	5대은행	`24.2분기
▸ 정책금융기관의 신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	산은·기은·신보·기보	계속
▸ 중견기업 P-CBO 발행 지원	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	`24.2분기
▸ 매출채권 유동화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	신용보증기금	`24.2분기
▸ 신보가 직접 P-CBO 발행하여 발행비용절감	신보(신보법 개정)	-
▸ 성장단계별 보증지원프로그램	5대은행 및 신용보증기금	`24.상반기
Ⅲ. 고금리 등 경영애로 해소 및 재기지원		
▸ 고금리·고물가 어려움 해소 지원	5대은행 및 기업은행	`24.4.1일
▸ 중소기업 회복지원 프로그램	기업은행	계속
▸ 중소기업 전용 고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	산은·기은·신보·기보	계속
▸ (유동성부족직면)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	은행권 공동(협약개정)	`24.2분기
▸ (부실징후 기업) 기업구조 혁신펀드(5호) 조성	자산관리공사	`24.하반기
▸ (부실징후 기업) 경영정상화가능기업 자금공급	기은·신보·캠코	계속
▸ (부실징후 기업) 동산 S&LB 도입	자산관리공사	계속
▸ 성실경영 후 실패경험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	신용보증기금	`24.상반기
Ⅳ. 기업대출 제도 및 인프라 개선		
▸ 은행권 펀드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인하적용	금융위·금감원	상반기
▸ 건설사 보증서 담보부 분할실행대출 위험가중치 인하	금융위·금감원	`24.1분기
▸ 차주 신용등급 결정에 대한 개별은행 자율성 보장	금감원	계속
▸ 신정원 기업금융경영분석지원시스템 고도화	신용정보원	`24.1분기
▸ 사업재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원	금감원	`24.1분기